

미래음악교육학회 제6회 학술 세미나

다문화 음악교육의 현황과 과제

일시 2019년 5월 25일(토) 오후 1:30~5:00

장소 건국대학교 법학관 101호

초대의 글

최근 국가 기관에서 발표한 각종 통계들은 한국이 더 이상 단일 민족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일례로, 2017년 국내의 다문화 혼인 건수가 21,917건에 이르며, 2018년도에 전체 초·중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학생이 122,212명이라고 합니다. 이 뿐 아니라, 2018년도에 전국의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가 약 220,000명, 2018년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약 1,020,0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매우 빠른 속도로 한국 사회가 다문화화 되어가고 있는 현상에 비해, 학교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매우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학교 음악교육에 있어서의 다문화 대비 교육은 다른 나라의 노래들을 피상적으로 가르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보다 본질적인 수준에서의 다문화적 음악교육에 대한 연구와 실천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미래음악교육학회는 2019년 춘계 학술 세미나의 주제를 '다문화 음악교육의 현황과 과제'로 정하고, 국내의 저명한 학자와 연구자들의 발표와 함께 향후 한국의 다문화 음악교육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진지한 토론의 기회를 가지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 교사, 및 예비 교육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5월

미래음악교육학회장 최은식

세미나 주제

다문화 음악교육의 현황과 과제

세미나 일정

1:30 ~ 2:00 등 록

2:00 ~ 2:10 개 회 : 최은식 (학회장, 건국대)

제 1 세션

사회 : 양소영 (서울 신용산초)

2:10 ~ 2:40 [발표 1] 다문화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적 접근
주미경 (한양대 수학교육과, 한국다문화교육학회 부회장)

2:40 ~ 3:10 [발표 2] 다문화 음악교육의 성립 배경과 향후 과제
정진원 (춘천교대) · 정주연 (경인교대)

3:10 ~ 3:20 [토론 1] 손민정 (한국교원대)

3:20 ~ 3:35 휴 식

제 2 세션

3:35 ~ 4:05 [발표 3] 음악교사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신혜경 (숙명여대) · 최미영 (대구교대)

4:05 ~ 4:35 [발표 4] 초·중등 음악교과서에 제시된 다문화 학습내용 분석
오지향 (전남대) · 조혜윤 (광주 운남고)

4:35 ~ 4:45 [토론 2] 박주만 (경기 서당초)

정기총회

4:45 ~ 5:00 사 회 : 최은식 (학회장, 건국대)



미래음악교육학회 활동

- 미래음악교육연구 학술지(등재 후보지) 발간 연 3회
- 학술 세미나 :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 교사들을 위한 연수 및 워크샵



세미나 오시는 길



지하철 이용시 2호선 건대입구역 2번 출구
7호선 건대입구역 4번 출구 / 어린이대공원역 3번 출구



버 스 이용시 건대역 240, 721, 2222, 2223, 2224
건국대학교병원(청담대교 방향) 240, 721, 2222, 3220, 4212
건국대학교앞 2223, 2224, 3220
건대앞 302, 3216